



문재인 대통령 챔스필드서 시구할까

“투표 인증 1위 팀서 시구” 공약...KIA 압도적 1위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생애 첫 시구에 나설까? ‘야구 명문’ 경남중-경남고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유년 시절 ‘동네 4번 타자’로 맹활약한 야구팬이다. 그는 2012년에는 한 야구 관련 사이트에 직접 “‘동네야구 4번타자’ 문재인 인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겨 야구와의 인연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었다. 경희대 재학 시절 교내 학년 대학 야구대회 주장을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문 대통령은 ‘무쇠팔’故 최동원 감독과의 각별한 인연도 소개했었다. 문 대통령은 최 감독이 선수 시절이었던 1988년 프로야구 선수 협회의 구성에 앞장서다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법률 자문으로 아픔을 함께 나눴다.

‘야구광’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2017 투표 참여 리그’라는 야구와 관련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투표 독려 또는 투표 인증샷을 문재인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응원하는 팀을 선택하는 이벤트로, 응원하는 팀을 기준으로 응원샷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투표 인증 1위 팀으로 가서 시구한다는 공약이 걸렸던 이번 이벤트의 1위는 KIA 타이거즈가 차지했다.

KIA 팬들은 19대 대선 투표가 마감된 9일 오후 8시 현재 5109점을 획득, 2위 LG 트윈스(3168점), 3위 롯데 자이언츠(1590점)를 크게 따돌리며 리그 성적저렴 타이어즈를 1위 팀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찾게 될 첫 야구장은 챔피언스필드가 유력해졌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으며 19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야구광’의 생애 첫 시구 무대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

추신수 시즌 4호포 ML 150홈런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리그 통산 150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9일 2017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서 텍사스의 8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0-4로 밀린 7회초 추격의 좌중월 솔로포를 날렸다. 추신수는 상대 투수인 좌완 브래드 핸드의 2구째인 시속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좌중월 담장을 넘겼다. 추신수의 시즌 4호이자 통산 150호 홈런이다.

200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2006년 7월 29일 데뷔 첫 홈런을 기록한 지 약 11년 만에 150홈런을 달성했다. 전날 시애틀 매리너스전에 이어 이를 연속 안타·타점 행진도 이어갔다. 추신수는 이날 통산 120호 도루에도 성공해 ‘호타준족’ 면모를 자랑했다. 추신수는 0-4로 밀린 5회초 1사에서 샌디에이고 선발 트레버 케이윌과 풀카운트로 맞서다가 볼넷을 골라 나갔다. 이후 2사 1루 텔리노 드실즈 타석에서 2루를 홈치며 시즌 2호, 통산 120호 도루를 기록했다. 하지만 드실즈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이날 2타수 1안타(1홈런) 1볼넷 1타점 1득점 1삼진을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8에서 0.243로 상승했다. 추신수의 홈런은 텍사스의 유일한 득점이 됐다. 텍사스는 이날 안타를 2개만 생산하는 빈타에 허덕이며 1-5로 패했다. /연합뉴스

명골프 ‘빅3’ 한자리에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세계 남자 골프 ‘빅3’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무대는 오는 12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펼쳐지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다. 세계랭킹 1위 다스틴 존슨(미국)과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그리고 3위 제이슨 데이(호주)가 모두 이 대회에 출전한다. 올해 들어 이들 ‘빅3’가 모두 출전한 대회는 지난 3월 텔 매치 플레이 딱 한 번 뿐이다. 이들 ‘빅3’가 스트로크 방식 대회에서 대결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메이저대회 못지않은 위상을 자랑하는 특급 대회다. 상금은 US\$500만이다. PGA 챔피언십과 같은 마스터스와 디옌보다 많다. 출전 선수 면면도 화려하다. 세계랭킹 25위 이내 선수 중에 토머스 피터스(벨기에)만 빼고 24명이 출전한다. 세계랭킹 1위 굳히기에 나선 존슨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 우승에도 도전한다.

그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US오픈 제패 이후 특급 대회에서 우승컵을 쓸어담은 존슨은 소그래스 TPC마저 정복할 태세다. 부상 이후 복귀전이었던 웰스피코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매킬로이는 결혼식을 올린 뒤 첫 출전이다. 지난달 24일 6억원을 들여 초호화 결혼식을 치른 매킬로이는 새로운 마음으로 대회에서 나선다. 데이는 사상 첫 대회 2연패를 노린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1974년 첫 대회를 연 이후 아무도 2년 연속 우승을 해내지 못했다. 잭 니클라우스 혼자 3차례 우승했을 뿐 2차례 우승도 5명에게만 허용했다. 데이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첫날 코스레코드를(63타)를 세우며 외이여우이여우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최형우·안치홍·이범호 ‘광’...양현종 7연승 ‘축포’



KIA, kt 9-4 꺾으며 4연승 양, 6이닝 5피안타 3실점 “첫 피홈런 오히려 활기분”

KIA 양현종이 자신의 최다 연승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팀의 4연승을 이끌었다.

KIA 타이거즈가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3개의 홈런 포함 장단 14안타로 9점을 만들며, 9-4승리를 거뒀다.

타선의 화려한 지원을 받은 양현종이 6이닝 5피안타(1피홈런) 7탈삼진 3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되면서 개막 후 7경기에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됐다.

양현종은 이 승리로 지난 2010년 5월 1일 사직 원정에서부터 6월 2일 대구 원정까지 이어졌던 6연승 기록을 넘어 자신의 최다 연승 기록을 ‘7’로 늘렸다.

선취점은 양현종이 내렸다. 2회 선두타자 유한준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양현종은 좌익수 플라와 삼진으로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김사연에게 좌중간 2루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1회 2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KIA 타선이 2회 대폭발했다.

안치홍의 볼넷으로 시작된 2회말 공격. 김민식이 1루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김지성의 타구가 3루수 글러브를 맞는 내야 안타가 됐다. 이어 중견수 키를 넘기는 버나디나의 2루타가 나오면서 1-1 균형이 맞춰졌다. 1사 2-3루에서 이명기의 희생 플레이로 한 점을 보낸 KIA는 나지완의 좌전안타에 이어 최형우의 투런까지 더해 대거 5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3회와 4회에도 큰 것 한 방이 터지면서 양현종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안치홍이 3회말 무사 1루에서 kt 선발 정대현의 133km짜리 직구를 공략, 좌측 담장을 넘기며 타점 2개를 보냈다. 4회에는 이범호가 정대현의 115km의 느린 체인지업을 좌중간으로 보내며 시즌 마수결이 홈런을 장식했다.

9-1로 앞서 5회 양현종이 2사 1루에서 kt 돌타자 오정복에게 시즌 첫 피홈런을 내렸지만 승패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포수 리드가



최형우



안치홍



이범호

좋고, 수비들도 잘해준다. 타선도 잘해주면서 연승을 하게 됐다”며 연승 소감을 밝힌 양현종은 “사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우천 취소를 생각하면서 내일 경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 잘못이다. (포수) 민식이가 고생을 많이 했다. 직구에 힘이 있고 그러면 바로 승부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고생했다. 나 때문에 민식이가 타석에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것 같다”고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또 양현종은 “홈런은 언젠가 나오는 것이라서 첫 피홈런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활기분한 것 같다”며 “(다승 단독 1위에 올랐지만) 승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다. 승은 타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웃음). 승보다는 이닝에 신경 쓰면서 남은 시즌을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양현종의 7연승과 함께 팀 4연승을 이룬 KIA는 이날 우천으로 경기를 쉬어간 2위 NC 다이노스를 3경기 차 밖으로 밀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BO리그 순위		(9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33	24	0	9	0.727	0.0
2	NC	32	20	1	11	0.645	3.0
3	LG	32	20	0	12	0.625	3.5
4	SK	32	16	1	15	0.516	7.5
5	넥센	32	15	1	16	0.484	8.0
6	롯데	32	15	0	17	0.469	8.5
7	두산	32	14	1	17	0.452	9.0
8	한화	32	14	0	18	0.438	9.5
8	kt	33	14	0	19	0.424	10.0
10	삼성	32	6	2	24	0.200	16.5



9일 kt와의 홈경기에 등판한 KIA 선발 양현종이 마운드에서 공을 보고 있다. 6이닝 3실점을 기록한 양현종은 9-4 경기의 승리투수가 되면서 7연승 행진을 달렸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기태 “김진우, 한 번 더 가지 뭐”

김윤동 “통산 1승 투수입니다”

덕아웃 T 특특

▲통산 1승 투수입니다 = 투수 김윤동은 지난주 넥센, 시작으로 이어지는 원정 6연전에서 4경기에 등판 1승 2세이브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일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는 3-3으로 맞선 7회 등판해 2이닝을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5-3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7년 차 김윤동에게는 46

번째 등판 만에 기록된 프로 데뷔 첫 승. 시즌 개막 전 “올 시즌 승리를 거두는 게 목표 중 하나다”고 언급했었던 김윤동에겐 기대했던 승리. 김윤동은 “선발승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승리를 기록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 이제 내 기록관에 올드, 세이브와 함께 승리까지 모두 숫자가 채워지게 됐다”라며 “통산 1승 투수입니다”라고 환하게 웃었다.

▲마무리 워. 보시다시피 = 초반 부진

으로 마무리 자리를 내어놓았던 임창용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김기태 감독은 9일 kt와의 홈경기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마무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감독은 “마무리 워 보시다시피”라고 웃으며 임창용의 중용을 예고했다. 김 감독은 “대단한 진수를 받은 뒤 ‘한 번 더 가지 뭐’라며 세 번째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범 경기에서 옆구리 염좌로 부상병이 됐던 김진우는 4월 29일 NC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등판을 소화한 뒤 지난 4일 넥센 원정에서 두 번째 등판을 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두 경기에서 7.2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지만 8실점이나 하며 부진했다. 무엇보다 5개의 몸에 맞는 볼 포함 12사구를 기록하는 등 들쭉날쭉한 제구가 문제였다. 그

리고 팀은 김진우가 선발로 나온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 ▲7승3패타 = 9일 경기에 앞서 수첩에 조심스럽게 숫자를 쓴 김민호 수비 코치. 김 코치의 메모는 ‘10-7승3패, 20-7승3패, 30-7승3패’였다. 개막 후 10경기 단위로 나눠서 본 KIA의 성적이라는 게 김 코치의 설명. 삼성과의 개막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로 장식한 KIA는 4월 12일 두산 전 8-4 승리와 함께 개막 후 10경기에서 7승3패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KIA는 7승3패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김 코치는 “지금 2승을 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며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